### 우수 성과자들의 특성 분석

HR | Analysis Report

PerformanceRating

● 성과가 비교적 좋은 사람 대상

Low, Good에 데이터 부재 Excellent, Outstanding으로 구성된 데이터 Excellent









Outstand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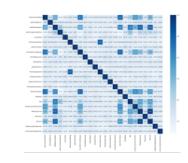
PerformanceRating

1244

226

● 무엇이 Oustanding하게 하는가?

치우쳐진 분포로 단순 수치로만 비교x



• PercentSalaryHike 변수가 업무 성과와 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.

#### PerformanceRat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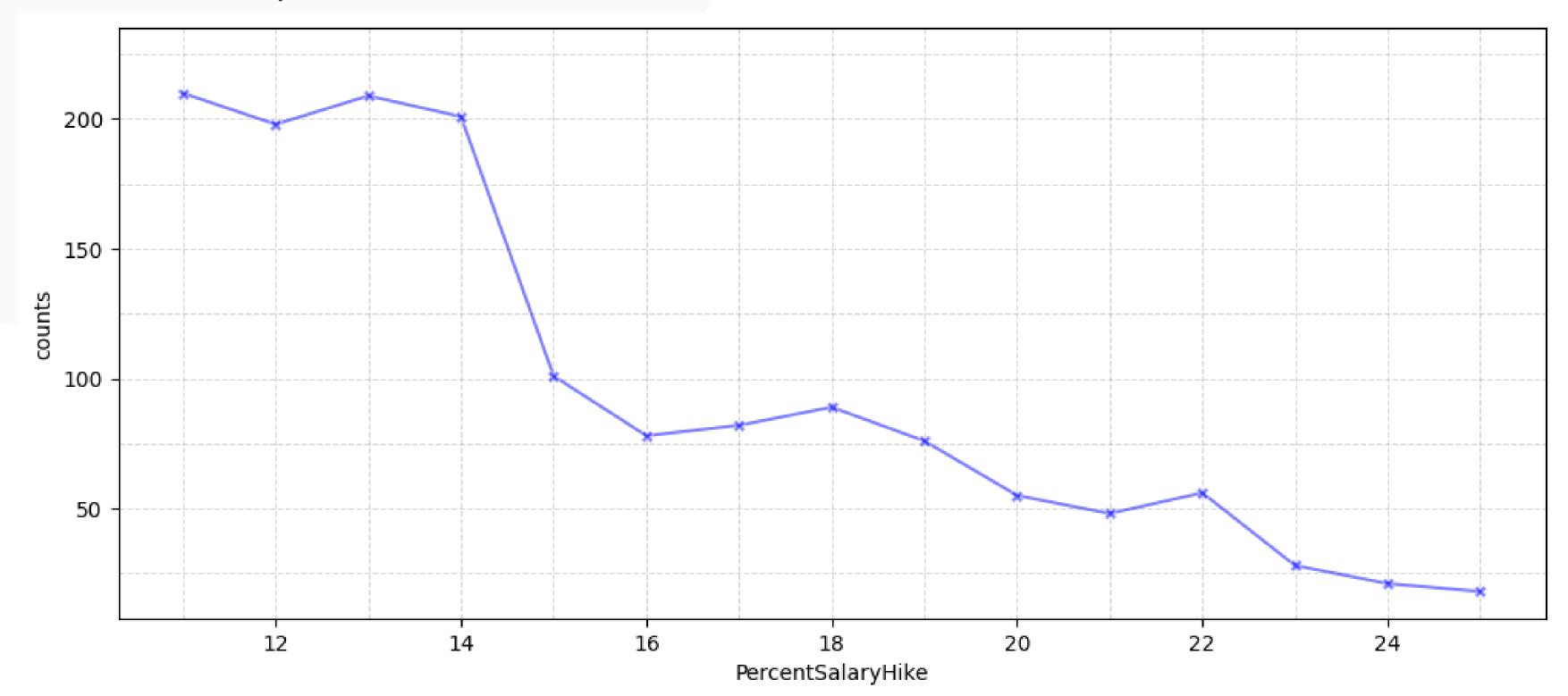


- 절댓값 0.3 기준 상관성이 보인다 할 수 있으므로 0.3 기준 확인
- 결과: "PercentSalaryHike"에 대해서만 상관성을 보임 (음수의 경우 절댓값 0.3 이상 넘지 않으므로 제외)
- 나머지는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.

```
df_corr.loc[df_corr['PerformanceRating']>=0.3, 'PerformanceRating']
PerformanceRating   1.00000
PercentSalaryHike   0.77355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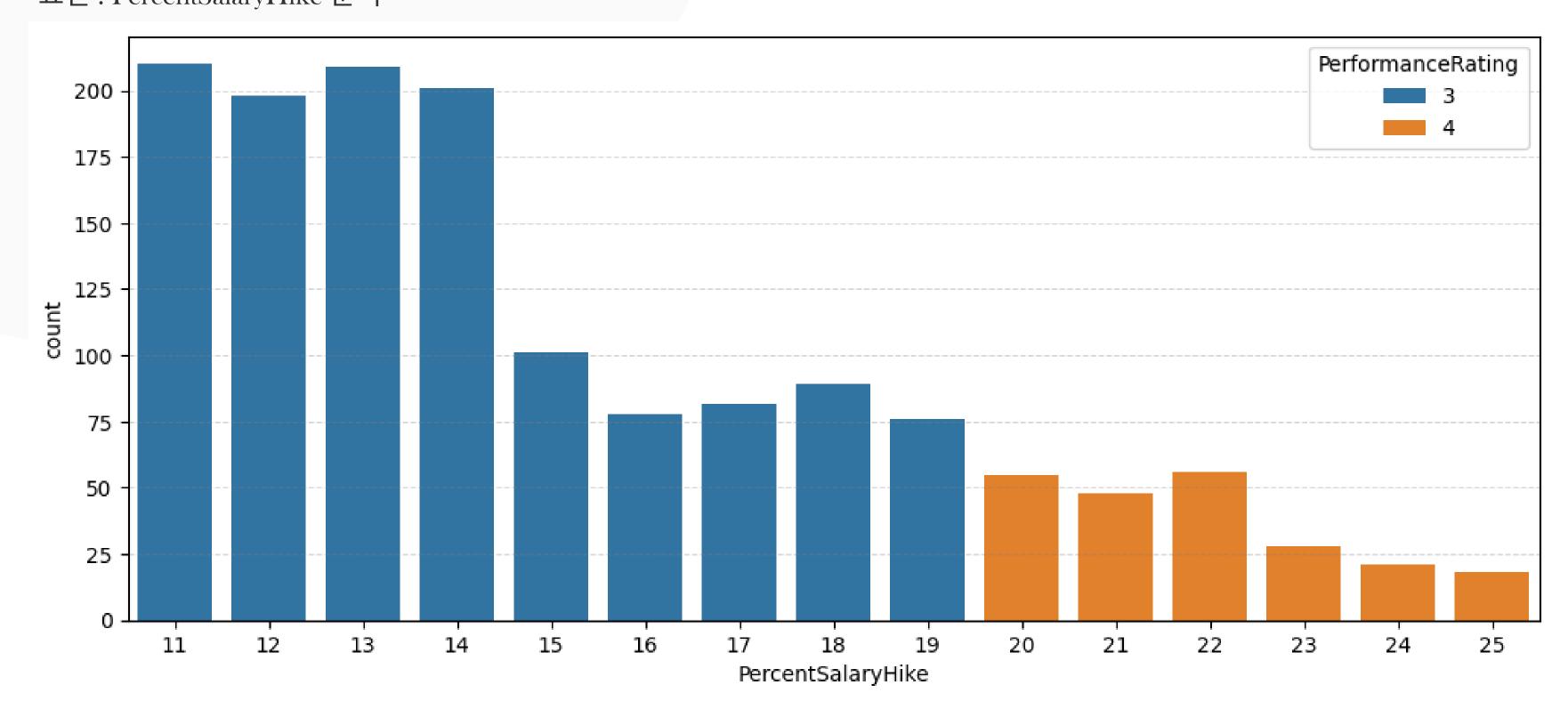
요인 : PercentSalaryHike 분석

- 업무 성과와 강한 상관성이 있는 "PercentSalaryHike"는 높을수록 수량이 줄어듦
- 높은 PercentSalaryHike를 받기 어렵고, 이것이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
- 상관관계 확인 결과 : 업무성과와 -0.92로 음의 상관성을 보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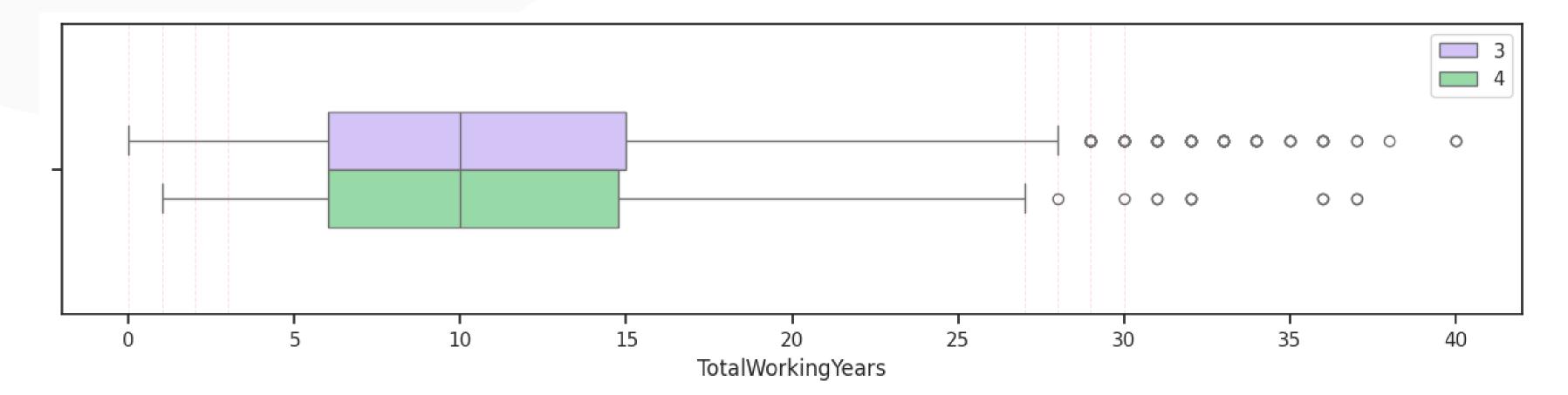
요인 : PercentSalaryHike 분석

- "PercentSalaryHike" 20 이상을 기준으로 업무 성과가 나뉘고 있음
- "PercentSalaryHike" 20 이상은 Outstanding, 10 이상 20 미만은 Excellent



요인 : 경력기간이 영향을 미칠까?

- 업무 성과 Excellent Group과 Outstanding Group의 경력기간 경향은 유사
- Excellent 평균 : 11.25, Outstanding 평균 : 11.40, 전체 평균 : 11.27
- 사분범위(IQR) 역시 유사하게 6~15년 정도
- Excellent 경력 (min: 0, max:28), Outstanding 경력 (min: 1, max: 27)



Work Life Balance

### ● 비교적 우상향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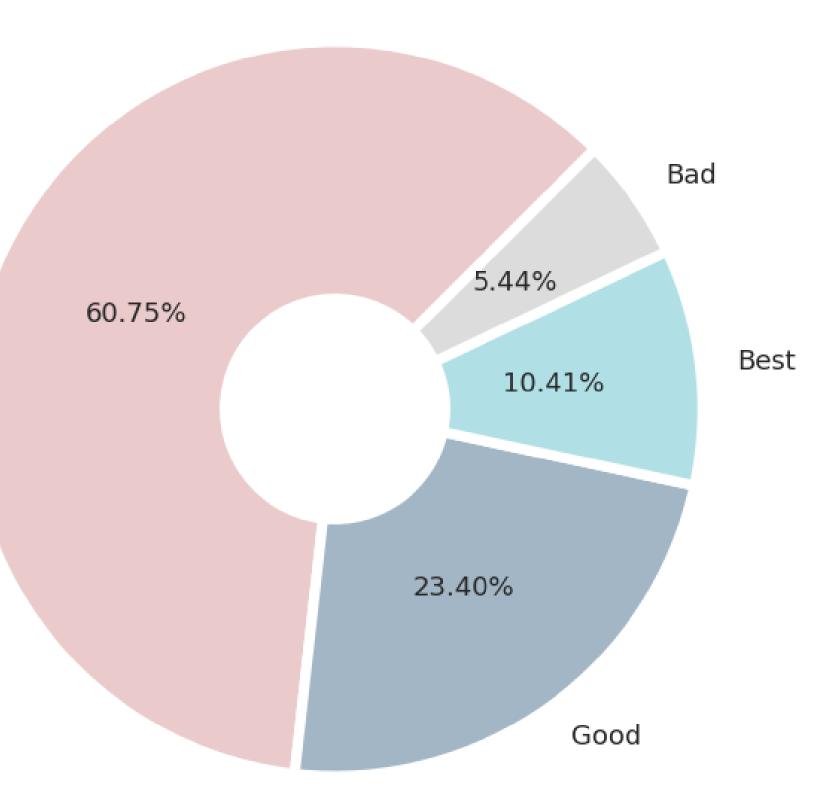
Bad, Good, Better, Best 순으로 살펴볼 때, Best를 제외하고 상향. Bad(80, 5.44%) - Good(344, 23.40%) - Better(893,60.75%) - Best(153, 10.41%)

### ● Best는 거의 없다

Bad, Good, Better까지는 가능하지만 Best는 어렵다 업무 성과별 분석시에도 비교적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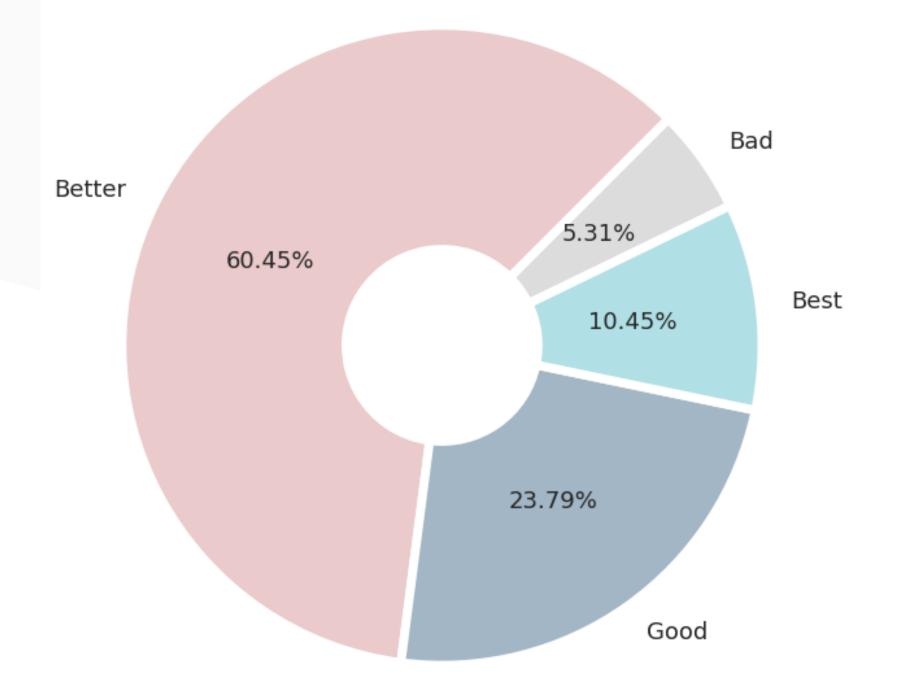
#### Total Work Life Balance

Bette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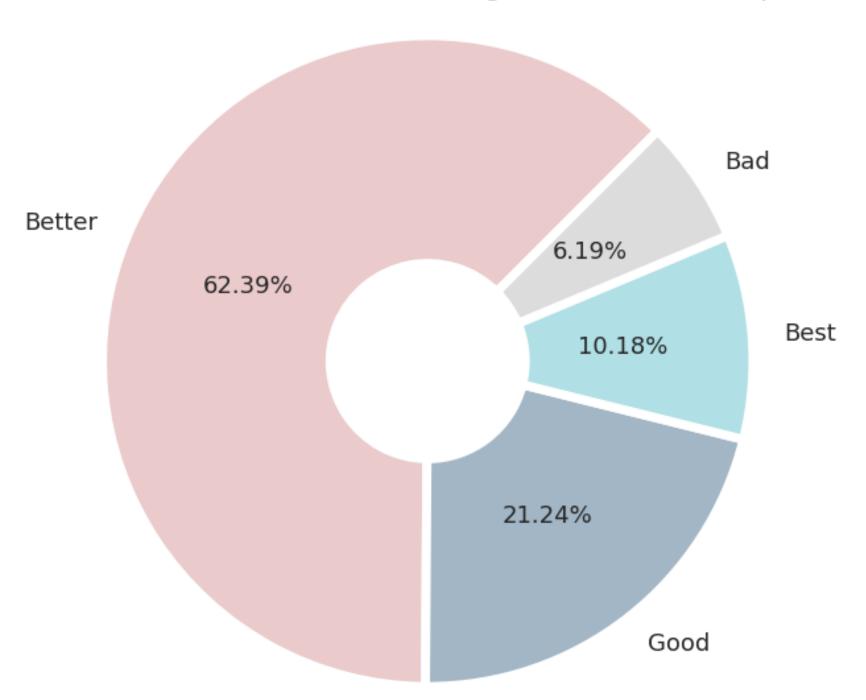
Excellent 그룹과 Outstanding 그룹의 Work Life Balance

Work Life Balance (Excellent Performance Grou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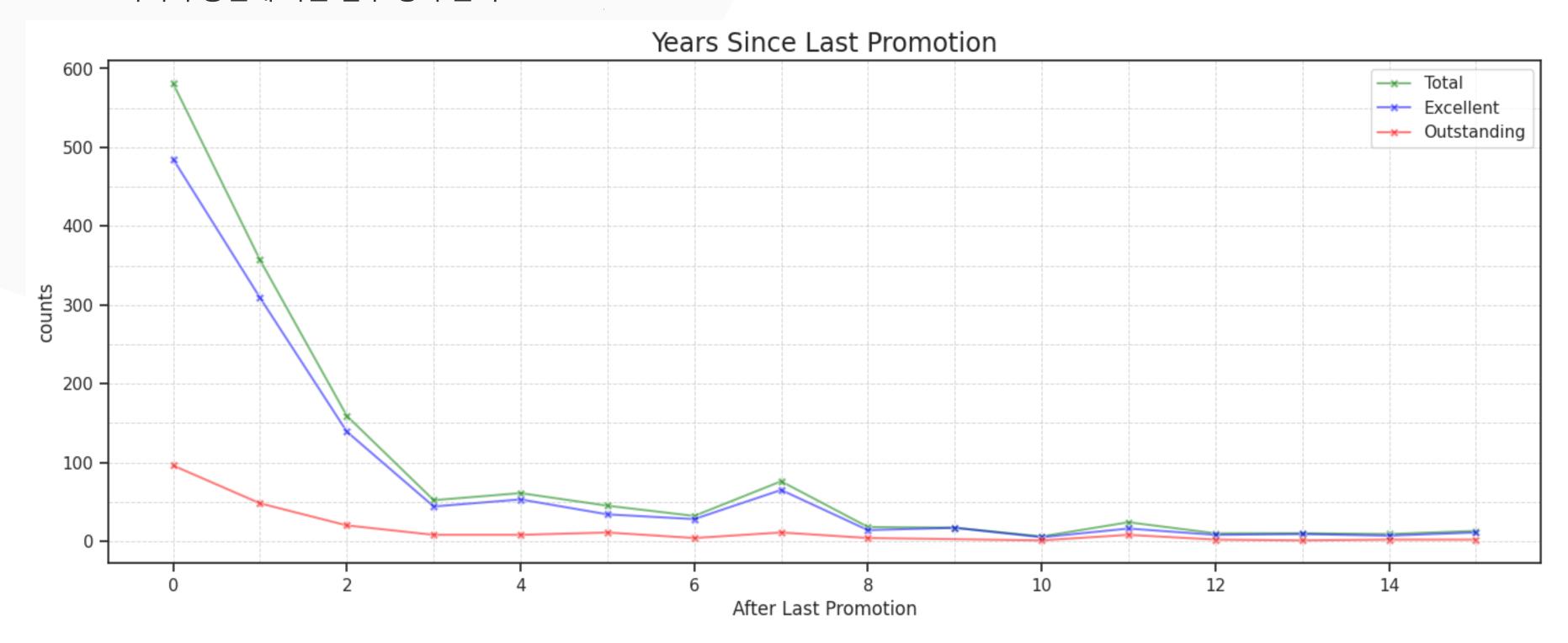
# work\_life\_balance 1 0.054422 0.053055 0.061947 2 0.234014 0.237942 0.212389 3 0.607483 0.604502 0.623894 4 0.104082 0.104502 0.101770

#### Work Life Balance (Outstanding Performance Grou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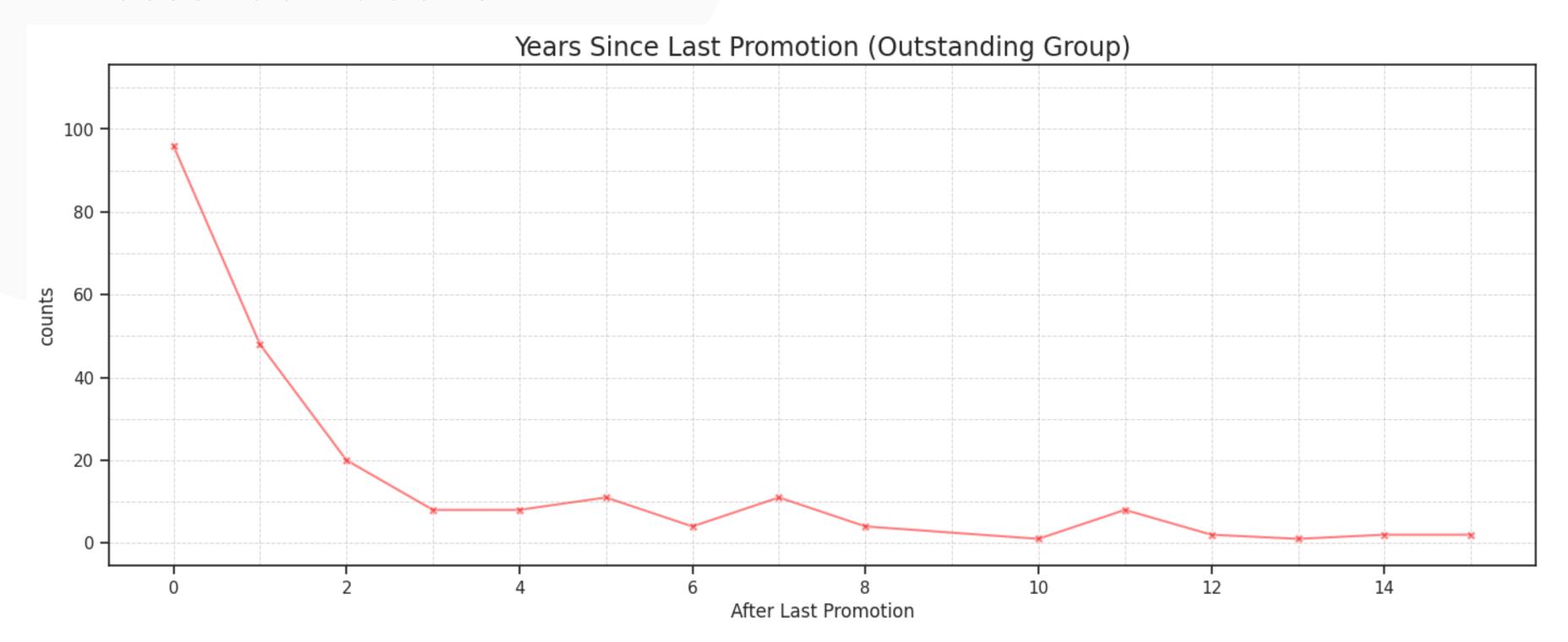
마지막 승진에 따른 업무 성과 분석

- 대부분 마지막 승진 연수가 0~2년 사이를 보임
- 초반에 승진을 많이하고, 2년 차 이후 특정 구간에서 승진하는 패턴으로 확인됨
- Excellent 그룹 대비 Outstanding 그룹은 전체 패턴에 대한 영향력이 낮은 경향이 있음
- Outstanding 그룹은 마지막 승진일이 2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남



• Outstanding 그룹은 마지막 승진일이 2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남

마지막 승진에 따른 업무 성과 분석



규정 외 노동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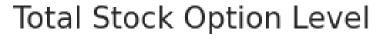
- "OverTime" 규정 외 노동시간의 경우 업무 성과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
- 전체 대비 초근을 하는 경우는 28.3%를 차지, 초근을 하지 않는 경우는 71.7%
- 초과 근무가 업무 성과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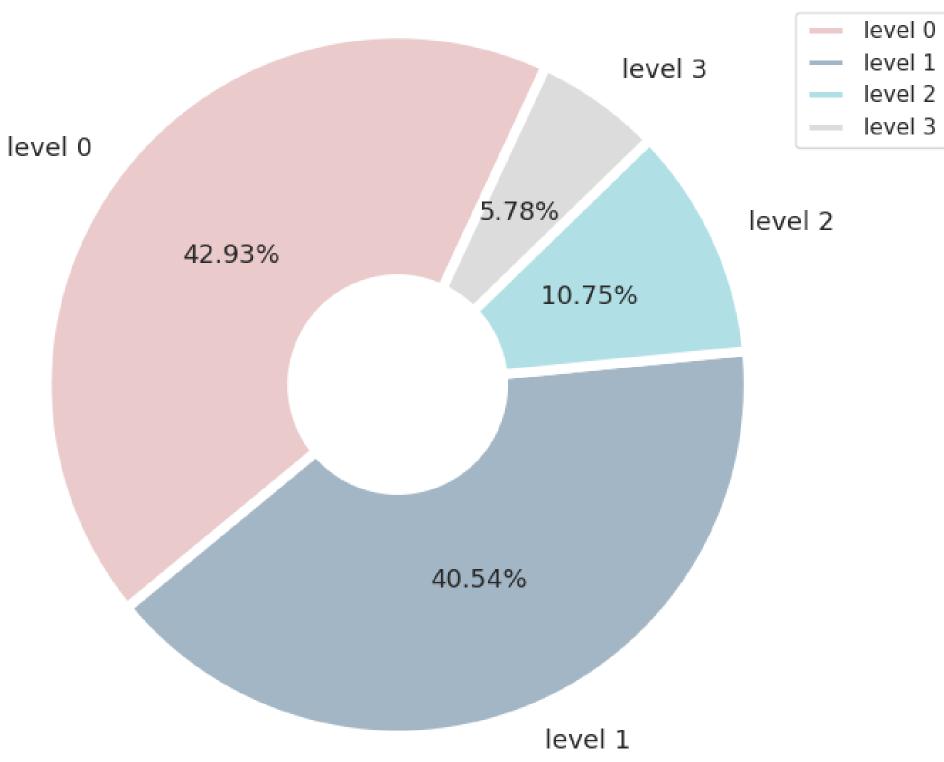
	OverTime	Excellent_OverTime	Outstanding_OverTime
0	No	0.717846	0.712389
1	Yes	0.282154	0.287611

Stock Option Level

### Stock Option Leve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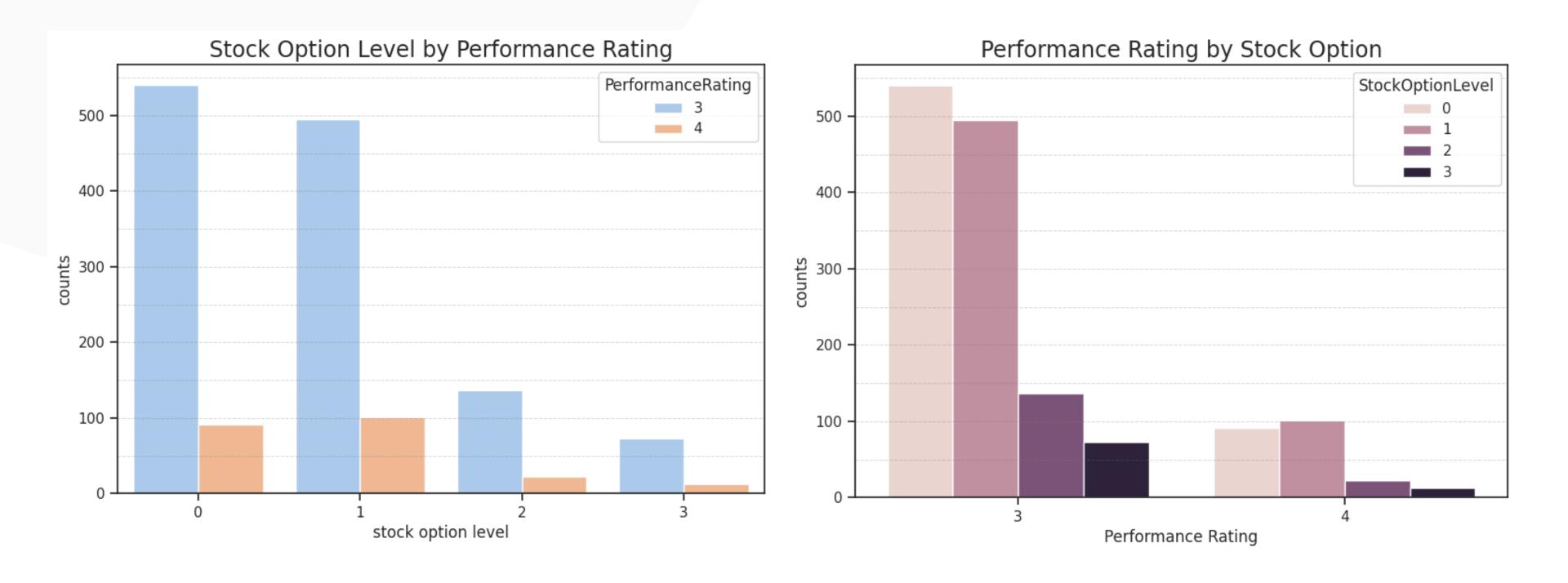
- 1) Level이 올라갈수록 모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
- 2) Stock Option이 높을수록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 가능





Stock Option Leve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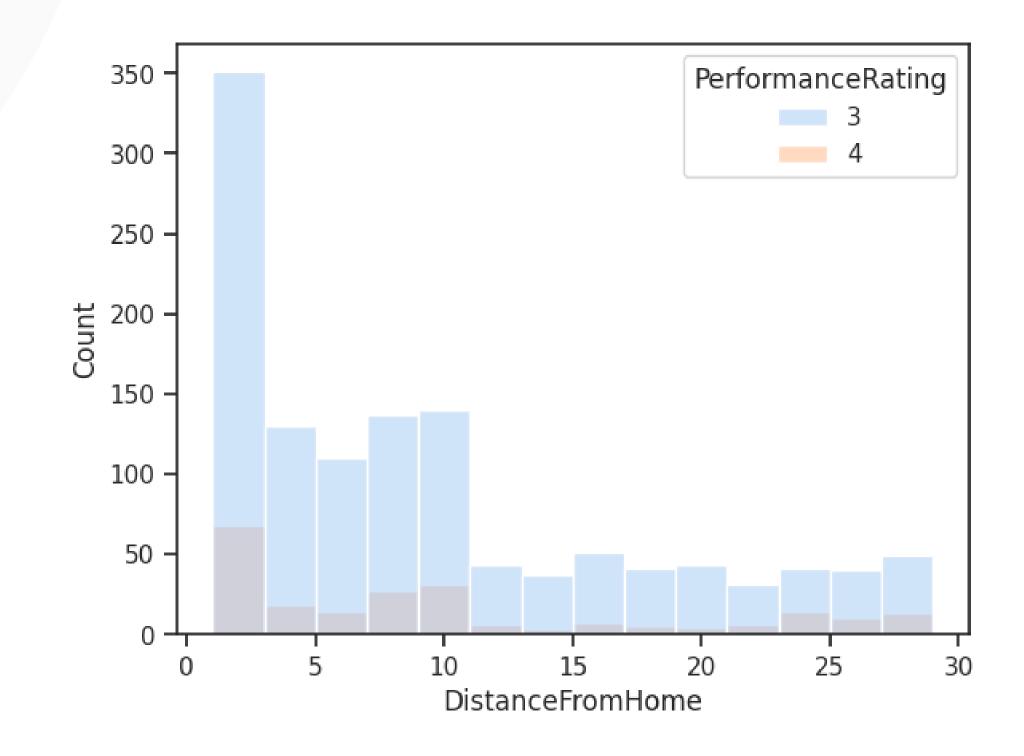
- 상관성이 있다 보긴 어렵지만 (0.0035), 패턴 확인이 가능함
- Excellent 그룹과 Outstanding 그룹의 분포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
- Excellent 그룹은 stock option에 따라 우하향하는 경향을 보이지만,
- Oustanding 그룹은 Stock option에 따라 level1에서 조금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



DistanceFromeH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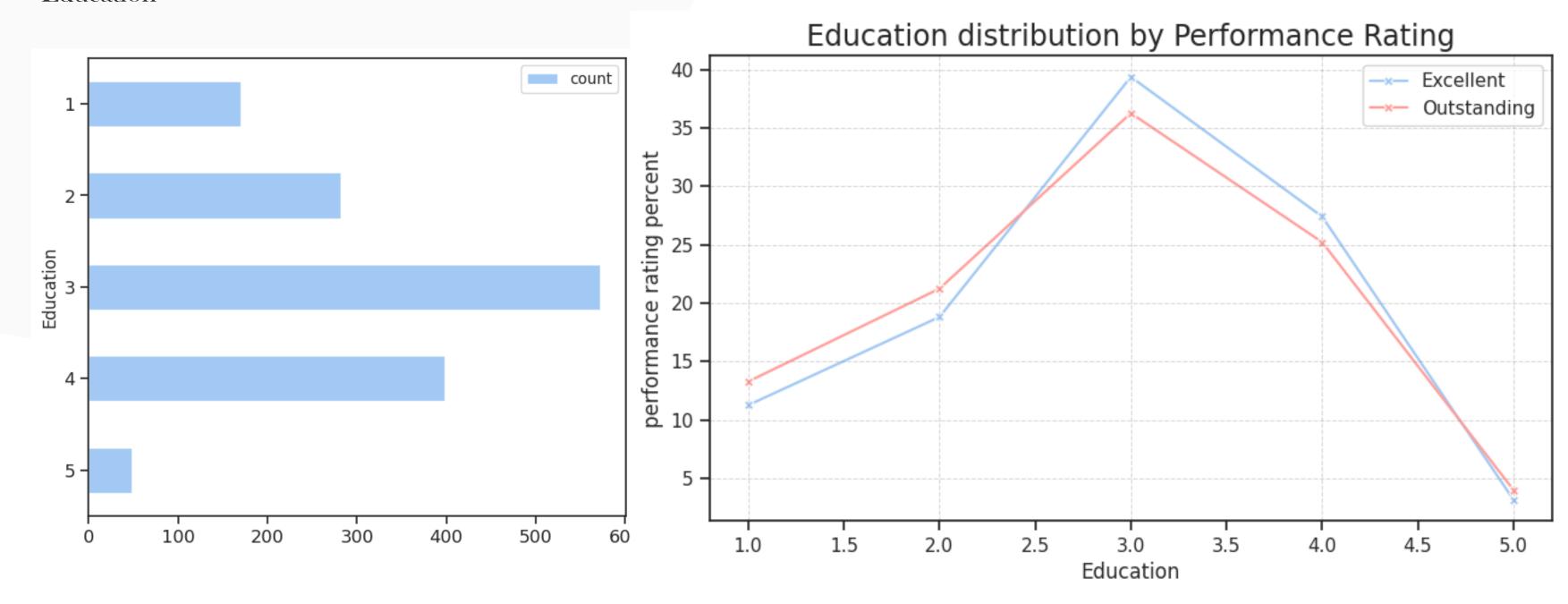
### ● 거리에 차이가 있을까?

- 1) 수량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, 분포는 비교적 유사
- 2) 거리와 다른 요소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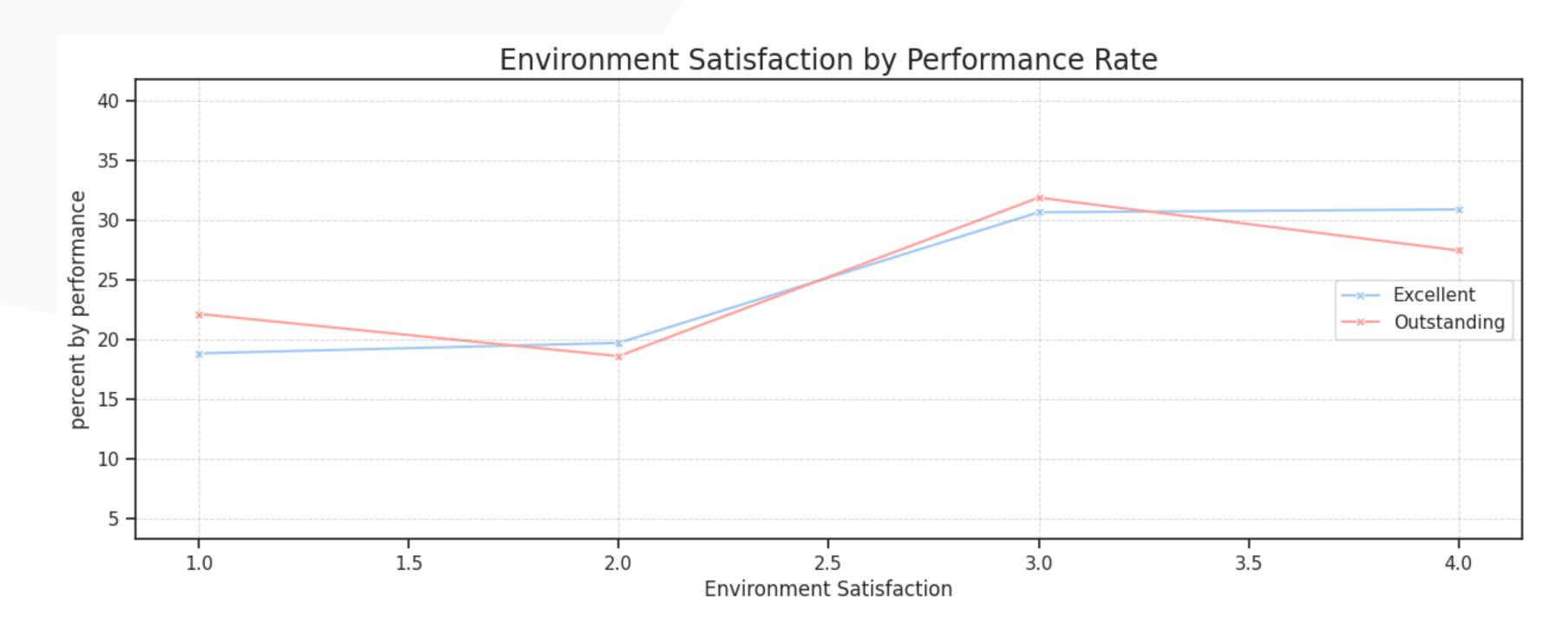
- Education에 따른 업무 성과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됨
- 패턴 역시 전체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

Education



**Environment Satisfaction** 

- 업무 만족도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.
- Excellent 그룹 대비 Outstanding의 그룹이 만족도 3에서 가장 높고, 4에서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.
- 업무 성과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.



Job Satisfaction

- 업무 만족도는 Excellent, Oustanding 모두 높은 편이다.
- Oustanding의 경우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.

